

고령자의 거주시설에 있어서 인간과 물적환경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이 경 락

목차

- I. 서
- II. 시설내부의 영역
- III. Private Zone 내부의 영역
- IV. 기성시가지 집합주택단지와의 대비
- V. 고령자 전용주택에 있어서 座의 형성
- VI. 고령자 전용주택에 있어서 座의 질
(「居」, 「식」, 「침」)

(요약) 연구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대책을 고령자의 住환경의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370-880 충청북도 영동군 영
동읍 설계리 산12-1번지 영동공과대학교 건축공학과 이 경 락 교수 앞으
로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현재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형태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지만 주택과 시설, 병원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러한 거주형태, 즉 물리적인 환경은 어떠한 형태로든 고령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반경의 축소가 예상되는 고령자들에 있어서는 그 영향은 더욱 크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각 다른 거주환경의 고령자에 대한 영향을 영역적인 관점에서 비교함으로써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고령자 주거환경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I. 서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고령자가 가능하면 이전부터 살아온 주택 혹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건강, 복지 나아가서는 주택 개조 등을 포함한 주택 케어(care)의 제반시책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주택케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택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대비책 마련이 복지거주시설이라든가 고령자주택의 정비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자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다종다양한 거주형태의 내부공간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상호 비교하는 것인데, 자신의 주공간에 대한 거주자들의 의식이 어떠한며, 또 의식의 차이를 보인다면 각각 다른 거주형태가 지니는 물리적 환경의 특성이 고령자의 생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고령자주택 혹은 시설의 설계계획에 있어서 유용한 거주자의 영역형성과 환경적응의 과정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시설내부의 영역

고령자의 거주시설은 본래 거주자의 신체적 기능의 약화에 수반되는 제 문제를 고려하여 물리적·정신적 측면으로부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주택과 병원이라는 양극의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서, 다양한 종류 및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자는 생활행동과 의식상에서 소위 시설의 수준에 대응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그 제약의 요인은 주로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 1) 시설의 하드·소프트면 : 케어서비스, 운영상의 규제, 건축 공간 등
- 2) 개인적인 요인 : ADL, 성격, 과거의 생활 관습, 경제력 등
- 3) 외부환경 : 시설 주변 환경 등

이들 중에서 거주자 측에서 환경으로의 작용은 '물체'에 대한 것(물리적인 환경 속에서의 영역형성)과 '인간'에 대한 것(교류)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에서 든 3가지의 요인 중에서 1)의 시설이 미치는 제약이 거주자의 영역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주목하여,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주자와 공간·물건사이의 대응관계를 조사·분석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환경적응의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조사대상으로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별養護노인홈(이하 特養), 養護노인홈(이하 養護), 輕費노인홈(이하 輕費)과 실버피어(silver-pia)의 다양한 수준의 care 서비스기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일본 동경都 소재의 S시설을 선택했다. 이중의 特養, 養護, 輕費는 경제적인 능력과 신체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구분 지워지며,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노인시설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인 능력이 구분기준에 일

부 포함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위에서 나열한 순서대로 신체적인 능력이 구분 기준의 주가 있다. 즉 特養→養護→輕費의 순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버피어는 완전한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이라기보다는 노인주택에 가까운 점이 많으나 시설과 비교대상으로는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1> 至誠 home의 개략

시설 명	至誠노인 home	至誠和光 home	至誠특별 養護노인 home	立川市 Silver-pia	至誠 daycare-c enter	和光 진료소
종별	養護노인 home	輕費노인 home	特別養護 노인home	고령자습 주택	고령자주 택service center	진료소
건물 면적	1763m ²	1243m ²	3791m ²	708m ²	1310m ²	764m ²
정원	60명	50명	140명	15戶		19床
거실	個室, 2인	個室	4인室	1DK		

1. 개인공간과 공용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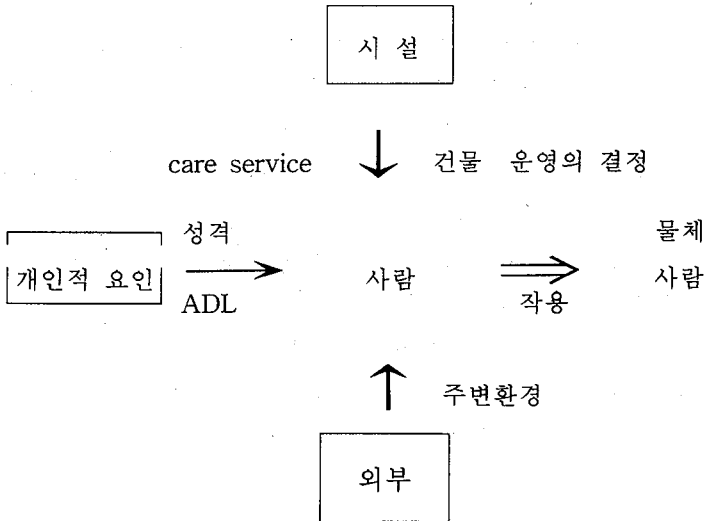
시설내 여러 공간의 영역성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림 1>, 그리고 Sandra C. Howell(1982)의 개념에서의 <그림 2>를 도입하여 시설의 각 부분을 4개의 존(zone)으로 나누었다.

- 1) Private Zone : 각 거주자에 의해 통제 되어지는 부분
- 2) Semi-private Zone : 각 거주자가 공유가능한 부분
- 3) Semi-public Zone : 거주자의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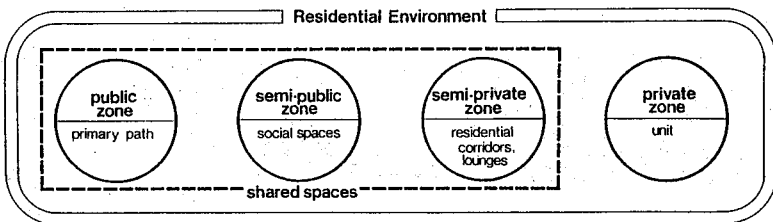
고령자의 주거시설에 있어서 인간과 물적환경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인적으로는 통제되지 않는 부분

4) Public Zone : 거주자, 방문자, 직원에게 공유되어지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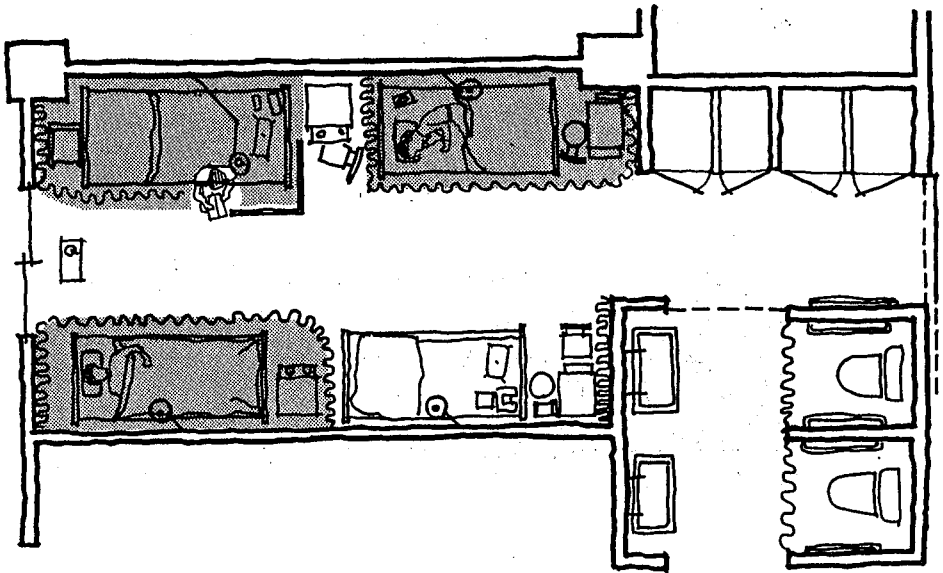


<그림 1> 시설거주자에의 제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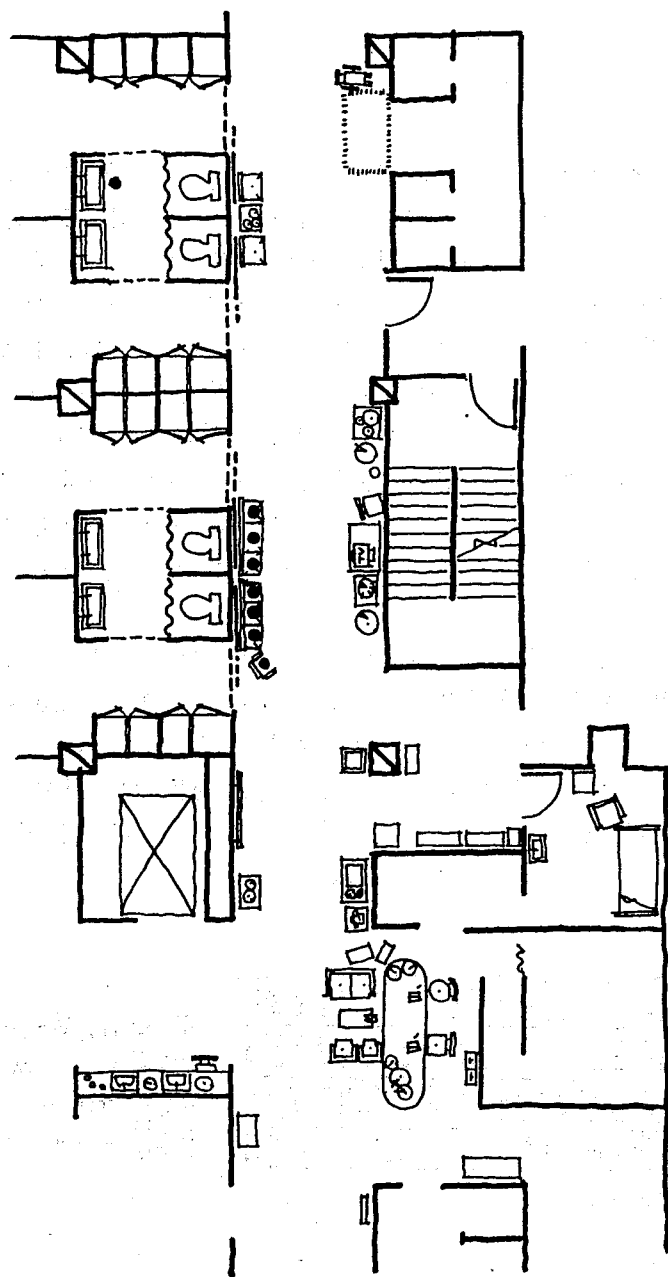


<그림 2> 시설내부의 4가지 zone

Howell은 시설내부의 공간에 있어서의 거주자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Howell이 행한 분류작업은 한정된 활동을 ‘실’이라는 단위와 대응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조사의 결과, 본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거주자의 영유(領有)행동을 살펴보면 반드시 室이라는 단위와 영역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특별양호노인홈(이하 特養)의 경우 4인이 하나의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private zone이 아니지만, <그림 3>과 같이 커튼이라든가 파티션을 사용하여 사적인 영역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특히 저녁 식사 후부터 취침시간의 사이에는 거의 대부분의 실에서 나타나는 장면이다. 또한 <그림 4>와 같이 복도 부분에서는 물건을 이용한 물리적인 구획은 아니지만 거주자가 거기에 있는 텔레비전을 교류의 매체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본래라면 semi-public한 성격을 가진 복도부분이 semi-private적인 성격을 가지게되는 장면도 자주 나타난다.



<그림 3> 特養의 4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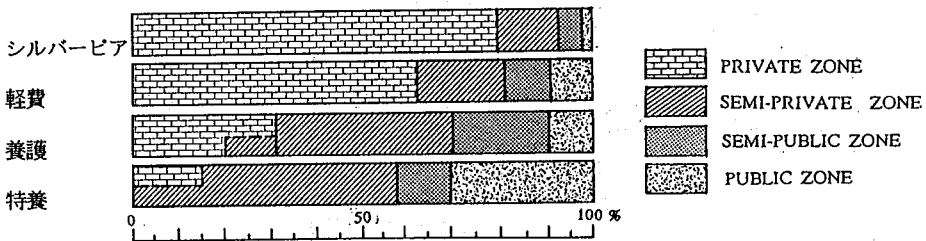


<그림 4> 特養의 복도

2. 공용 공간의 영역화

따라서 본 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Howell에 의한 분류를 채택하였지만, 그 지표로는 거주자의 영유행동을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표 2>는 이러한 개념에 따라 시설의 각 공간을 영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분류의 각각의 면적을 계산하여 비교해 보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각 zone의 면적을 시설간에 비교해 보면 거주자가 통제할 수 있는 private zone은 면적이 케어 서비스가 높아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Howell에 의한 면적과 새로 분류한 면적은 <그림 5>의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만큼의 차이가 있어 이 차의 대부분은 특양과 양호의 4인실, 2인실에서 원래의 셋팅을 사유화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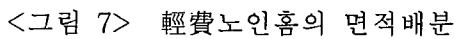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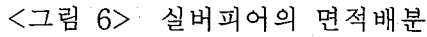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4가지 수준이 가지는 케어 서비스기능 등의 요인에 의해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private zone의 면적은 care service가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거주자는 그러한 시설의 제약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private zone을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말하자면 기능상의 이유로 배분된 공간이 거주자의 환경행동에 의해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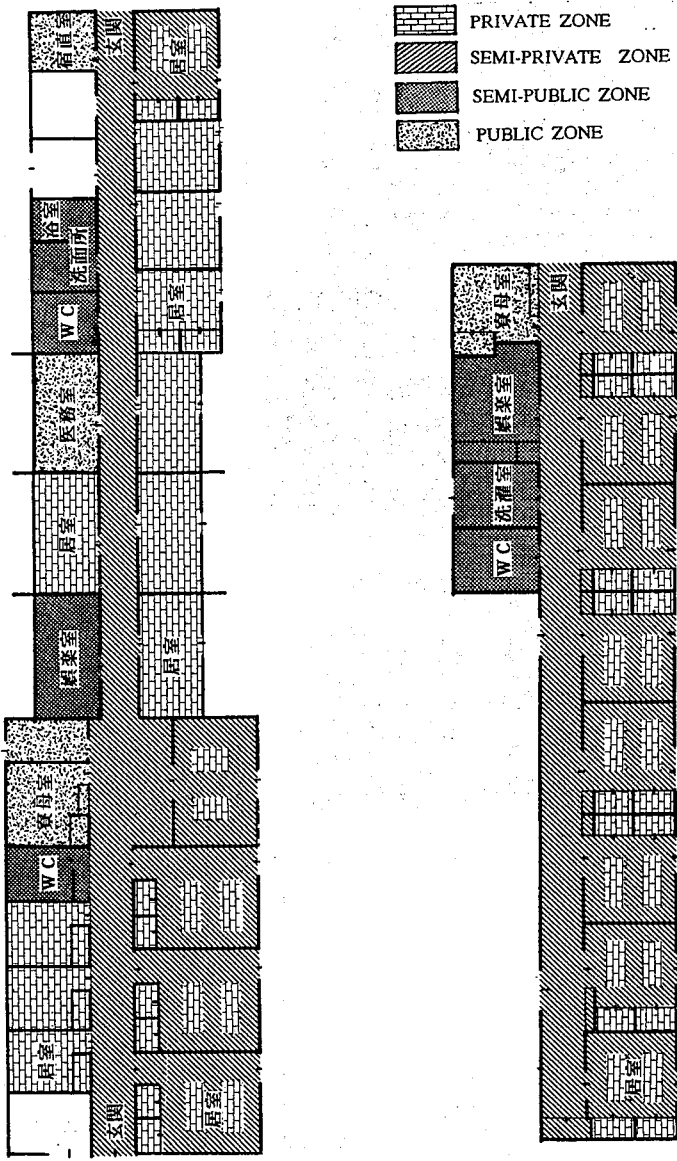
<그림 5> 각 시설의 면적배분

<표 2> 각 시설의 영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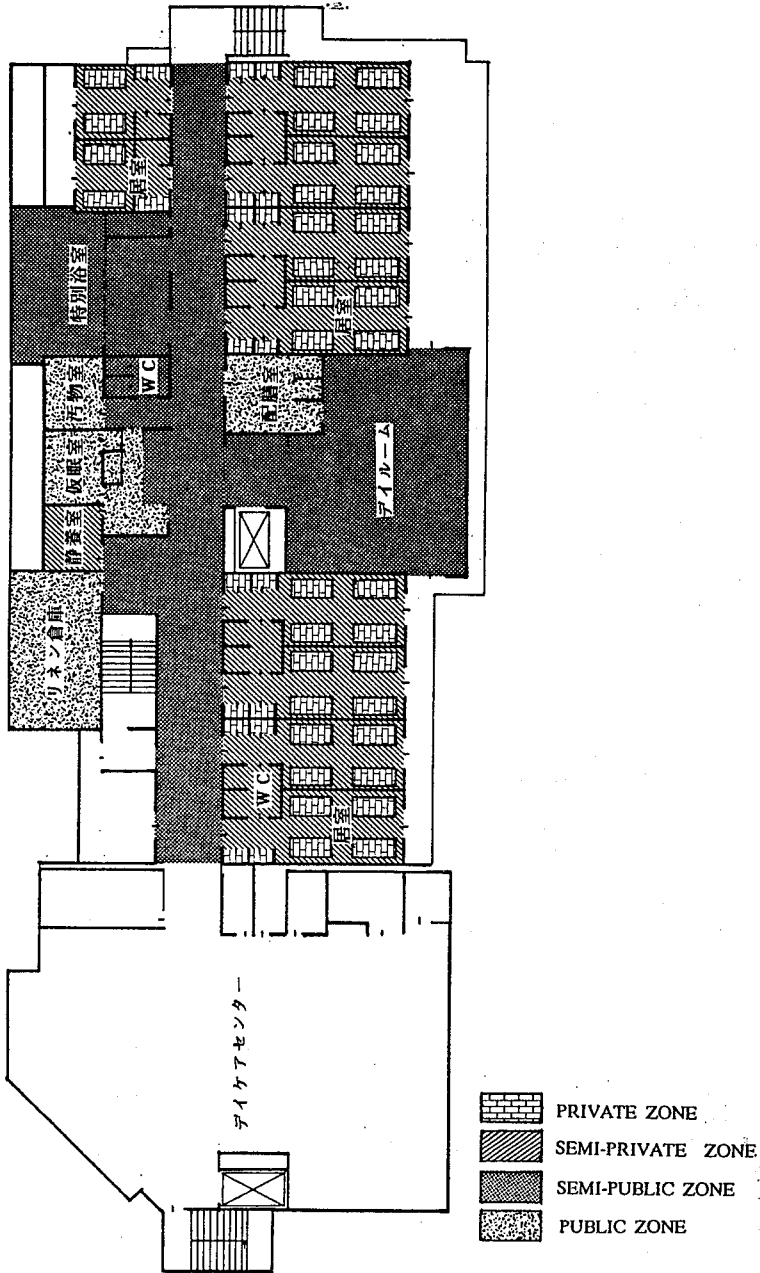
	Private Zone	Semi-private Zone	Semi-public Zone	Public Zone
특별養護 노인 home	각 거주자의 침대와 그 주변 수납공간	엘리베이터 hole, 복도, tea-room, 화장실, 靜養室	집회실, 공동식당, 욕탕, care-room, 탈의실, 활동실	직원실, 사무실, 현관에서 엘리베이터 hole까지 통로, station 현관로비, linen 창고, 配膳室, 療務室
養護노인 home	1인 : 거실, 베란다 2인 : 침대와 그 주변, 수납공간	복도, 靜養室	활동실, 오락실, 식당, 화장실, 탈의실, 세면세척실	현관hall, 숙직실, 療母室, 의무실, 면접실, 사무실
輕費노인 home	거실내부, 베란다	복도, 로비	식당, 오락실, 욕실, 탈의실, 공동화장실, 도예·훈련실	현관hall, 사무실, 진료실, 응접실
Silver-pia 노인집합 주택	住戶내부, 베란다	복도	담화실	사무실



고령자의 주거시설에 있어서 인간과 물적환경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그림 8> 養護노인홈의 면적배분



<그림 9> 特養노인홈의 면적배분

Ⅲ. Private Zone 내부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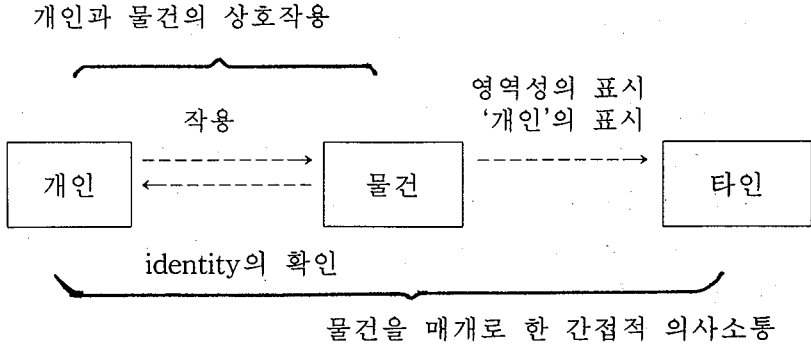
여기서는 전절에 이어 시설로부터 주어지는 하드·소프트면의 조건이, 거주자의 '물건'을 통한 환경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특히 인간과 물건과의 관계가 농후하다고 생각되는 private zone에 주목하여 동시설을 대상으로 각각의 거주형태마다 영역형성의 양상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환경속에 놓여지는 물건의 의미(private zone내부의 물건)

개인의 환경에 대한 행동으로 놓아두는 물건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의미이며, 이는 개인과 자기의 욕구·기호·성과 등의 투사물로서 '물건'을 놓음으로서 과거에서 현재에 걸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환기시켜가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자신의 표현으로서의 의미이다(<그림 10> 참조). 이러한 점에서 인간과 물건의 상호작용이 외부에 대한 영역성으로 표현되며, 또한 외부로부터 영역성의 강도를 판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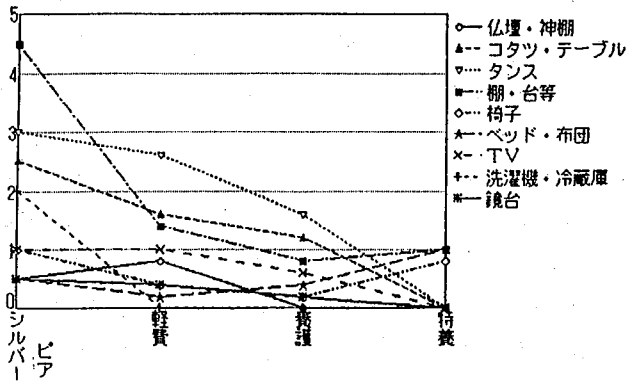
<표 3> 프라이빗존내의 가구

시설종류	공간면적(m ²)	가구개수(個)	가구면적(m ²)	가구割合(%)	소유가구개수(個)	소유가구면적(m ²)	소유가구割合(%)
Service-center	33.1	15.5	5.54	16.75	15.5	5.54	16.75
輕費	19.4	8.4	2.63	13.59	8.4	2.63	12.54
養護	8.5	5.0	1.89	22.16	2.4	0.49	5.14
特養	3.6	2.8	2.18	60.56	0.2	0.02	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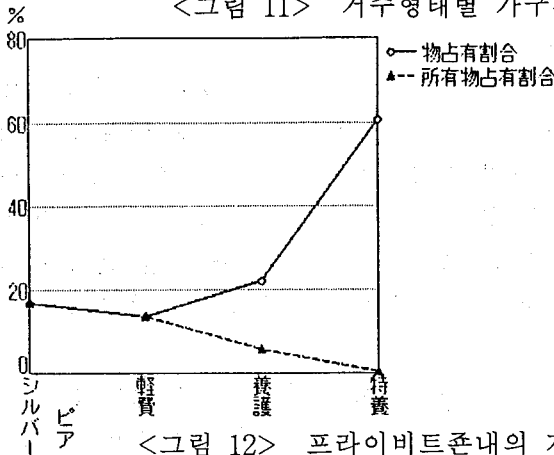


<그림 10> 물건의 의미

위와 같은 관점을 앞절에서 살펴 본 시설로부터 주어지는 private zone의 면적과 상관시켜 보면, zone내의 가구의 점유비율은 <표 3>과 <그림 12>와 같이 나타난다. 이는 각 거주형태, 즉 실버 피어, 경비, 양호, 특양의 각5실씩을 임의 선택하여 private zone내의 가구의 개수와 그들의 점유면적을 조사한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표 3>에 보이듯이 실버피어에서 특양으로 갈수록 가구가 격감하고 있다. 이는 주어지는 private zone의 면적이 줄어들어 의 해 실의 기능이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규칙에 의해서도 개인의 가구를 들여올 수 없게끔 되어 간다 (<그림 11>참조). 이를 다시 private zone 단위면적당의 가구점유면적으로 보면 양호·특양의 값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중 자신의 소유물로 한정시키면 특양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양호·특양에서는 자신의 소유물이외의 물건이 실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는 거주자 자신의 환경에 대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주자의 영역화에도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림 11> 거주형태별 가구의 갯수



<그림 12> 프라이빗존내의 가구점유율

2. 거주형태에 따른 영역형성

영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량적인 실증은 없으나 관찰 및 히어링에 의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되었다.

1) 실버피어<그림 13> : 일반의 주택에 가까운 주택형태로서 면적상으로도 여유가 있으며, 생활상의 기능은 private zone에서 완결된다. 농, 불단 등의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물건을 내부에 들여놓음으로서 영역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한편, 책상 등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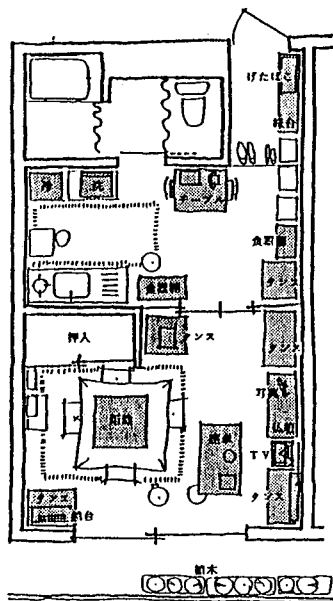
복수의 座가 나타나며, 손님을 위한 座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거주자 자신의 환경에 대한 행동에 의한 영역의 구분이며, 외부에서 잔신의 신체 주변에 이르기까지 계단식으로 구분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2) 경비<그림 14> : 실버피어와 양호의 중간에 위치하는 거주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식사와 목욕은 내부공간에서 행하여지지 않는다. 가구로는 크지는 않지만 농, 불단 등이 놓여지고, 장식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조금씩 변화시켜 미루어 공간과의 상호작용도 어느정도 풍부한 편이었다. 면적의 제약과 생활기능의 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座는 특정한 곳으로 정해진다. Zone의 계단식 영역형성은 실버피어만큼에는 미치지 못하며, 자신과 공간과의 밀접도는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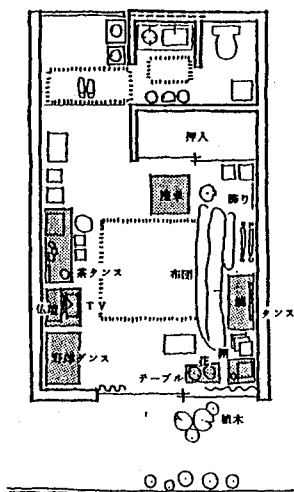
3) 양호<그림 15> : 실은 상당히 좁아지고 zone의 생활기능은 더욱 한정된다. 들여놓는 가구도 줄어들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가구를 빌어 쓴다. 예의 경우는 2인실로서 농, 다다미 침대 모두가 시설의 물건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의 물건이다. 거주자 자신의 환경에 대한 행동의 의한 영역화는 실 전체에 미치지 못하며 자신과 공간과의 상호작용이 결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특양<그림 16> : Private zone은 실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의 침대 주변으로 한정된다. 가구는 시설의 침대와 선반뿐으로 자신의 물건을 들여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가시간을 복도 또는 식당에서 보내는 일이 많으며, 실내의 생활감은 회박하다. Zone은 항상 외부로부터 침해당하고 있으며, 거주자의 공간과의 상호작용은 극히 결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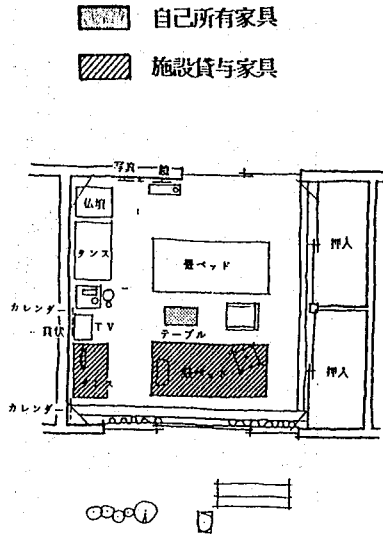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케어 서비스의 수준에 따른 시설의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조건의 차이가 거주자의 자신의 공간에 대한 영역형성에 큰 차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시설에 입소하는 고령자의 그 환경에 대한 적응도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문제로도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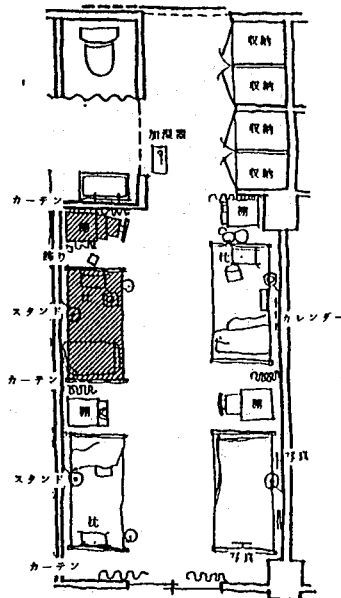
<그림 13> 실버피어의 예



<그림 14> 경비의 예



<그림 15> 양호의 예



<그림 16> 특양의 예

IV. 기성 시가지 집합주택단지와의 대비

II장과 III장에서 밝힌 각 시설의 거주공간과 대조시키는 의미에서, 통상의 주택지에서 생활하는 고령자의 생활실태에 초점을 맞춰 그 영역형성의 구조에 관해 고찰하기로 한다. 조사대상으로는 일본 동경도 문경구 N지구, 북구A 집합주택단지의 두 지구를 택하였으며, 주호의 평면채취, 양케이트, 히어링조사를 행하였다.

1. 거주자가 놓는 물건의 의미

자신의 주위 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영유의식을 파악하는 수단으로써 주위 공간의 놓여지는 물건에 주목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에는 <표 5>와 같이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용품(기능적 의미)에서부터 불단, 화분, 사진 등의 상징적 의미가 강한 것까지 포함한다. 어떤 공간에 대한 점유화의 표현은 가구 등의 기능적인 물건의 꾸밈 정도에 따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7>참조). 이와 같이 물건을 매개로 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장소, 자신의 영역으로서 의미를 확인하고 표현해 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표 4> 히어링 조사대상자 개요

	히어링人數	남녀구성 /양케이트인수	세대형태
기성 시가지	26	남 : 12 여 : 14	혼자생활 : 15 부부만 : 10 그밖 기타 : 1
집합주택단지	23	남 : 11 여 : 12	혼자생활 : 12 부부만 : 9 그밖 기타 : 2

1) 주거면적과 물건의 관계

상술의 물건을 놓는, 꾸미는 등의 행동은 먼저 주거의 넓이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그림 1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거의 면적은 커지더라도 물건의 양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 소위 한사람, 혹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소유하는) 물건의 양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표 5> 물건의 의미적인 분류

기능적 의미의 물건(생활행동)				상징적 의미의 물건 (정신적 안정)		
1	생활기능	寢	침대, 낮잠침대, 이불	5	추억	사진, 수첩
		衣	장롱, 정리함, 옷걸이			
		食	식탁, 의자, 부엌 관련물, 식기함	6	감상	미술품, 인형상자
		衛生	욕조, toilet, 쓰레기통, 난방기구			
2	여가생활	수도, TV, 탁상, 소파 오디오, 다기류, 책장		7	종교	불단,
3	대인생활	전화, 탁상, 소파, 인터폰		8		식목, 수도
4	공동생활	게시, 칠판, 매점카운터,				

2) 내부공간에서의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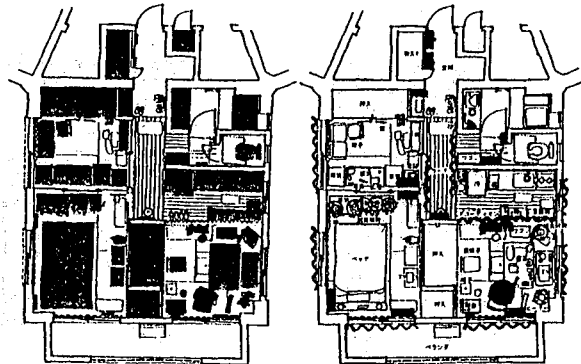
주공간의 면적, 기능적인 물건의 점유비 상징적인 물건의 꾸밈 정도는 내부공간에서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준다. <표 6>과 같이 2실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평소의 체재장소로 사용하는 방을 복수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예가 많고 N지구 1/13, A지구 3/10에서는 같은 방의 속에서 물건을 공간의 구분사용을 예측하여 배치하고 있다 (<그림 19>참조).

고령자의 주거시설에 있어서 인간과 물적환경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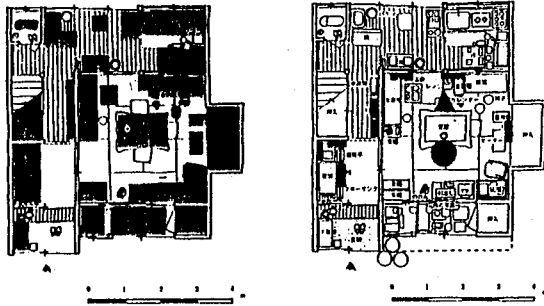
한편 2실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상 행위가 대부분 같은 방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N지구에서 5예, A단지에서 2예가 나타났다. 이러한 구분사용의 차이는 자신의 공간에 대한 대응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문제로, 그러한 선택성은 주거의 면적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서 거주자의 내부공간에서의 행동과 영역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표 6> 조사대상자 住戶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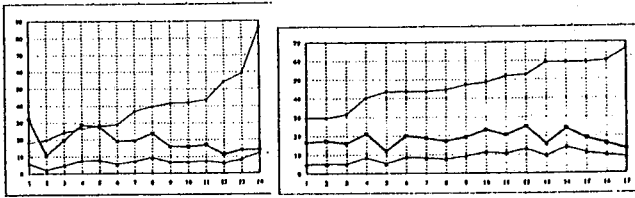
	주택지	집합주택지
평균주거면적	39.14㎡	47.6㎡
가구점유면적	6.92㎡	8.52㎡
평균開口部/ 평균外周長	9.47/30 m	7.06/29.17 m
평균室數	2.13실	2.16실
室數(1인생활 : 부부)	1실 2실 3실 1例 8例 5例	1실 2실 3실 3例 5例 2例
居장소가 1 (2실이상)	5例 : 1例/13例	2 : 3例 / 14例
2개이상의 居장소(2실이상)	7例/13例	5例 : 4 例/ 14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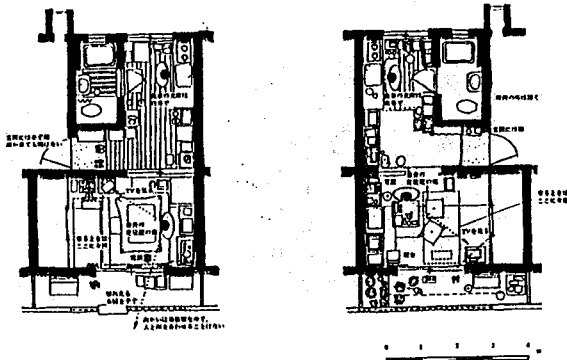
<그림 17> 내부의 물건의 전개 (A단지)



<그림 18> 내부의 물건의 전개 (N지구)



<그림 19> 주거면적과 물건의 점유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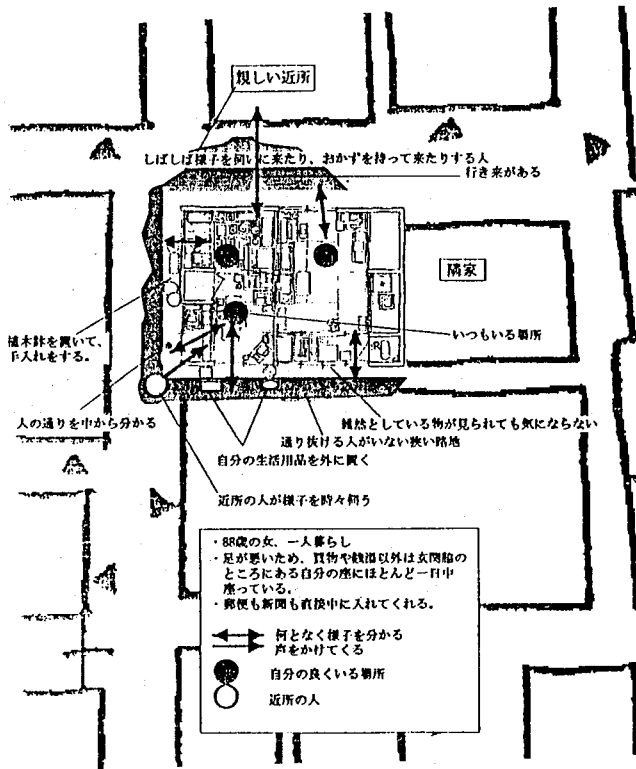


<그림 20> 내부에 있어서의 1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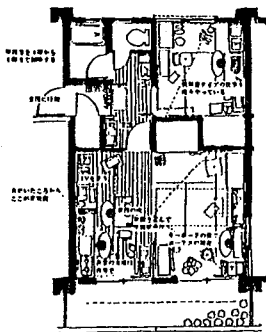
2. 住戶내·외부의 영유의식

거주자의 내부공간에서의 영유의식은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는 것과 동시에 외부로 퍼져가는 점도 있어서 이 양측면이 평소 의식 속에 항상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바로 지역 속에서의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기확인으로써의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1>과 같이 골목길(路地)에 면한 개방성을 크게 지닌 기호의 경우, 내부와 외부는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부에서 외부의 양상을 파악하기 쉽고, 외부에서도 내부의 양상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밀접한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자신의 체제장소·잠자는 장소·가구배치 등도 그러한 외부와의 상호적·직접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분이라든가 생활용품 등이 住戶의 주위로까지 확대되어 간다. 이에 반해 집합주택단지의 복도·계단실 등에 면한 집합주택의 경우, 외부와의 관계는 거의 시선에만 의존하는 일방적이며 간접적인 관계로 해석되어 진다(<그림 22>). 한편 골목길(路地)에 면한 예 중에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외부와의 관계를 회피하는 예도 있다. 이 경우에는 내부에서 폐쇄적인 영역구조를 가지게 된다(<그림 23>). 외부에 대한 영유의식은 路地の, 계단실의, 복도의 성격에 의해 서로 틀리는 수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부터 지금까지 프라이비트 zone으로써 일률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져온 住戶 내부공간도 엄밀하게는 거주자의 내용행동(領有行動)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서 구분된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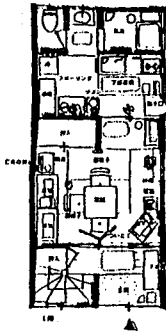


<그림 21> 개방적인 例



가끔씩 들어오는 옛날부터의 일거리를 위해서 한개의 방을 일방으로, 부엌과 또 하나의 방을 자신의 생활의 장으로 구분 사용하고 있다. 4층에서 1층까지의 계단을 청소하는 일이 많고 이웃사람들과의 안면은 있지만 유대관계는 인사치레정도, 화분을 베란다에 내어놓고 있고 방안에도 놓아두고 있다.

<그림 22> 외향적인 例



성격적으로도 내향적이고 그러한 성격이 주호의 내부사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관을 들어선 곳에 이동식 칸막이를 세우고 외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있다. 방의 구분사용에서도 사망한 남편의 이층작업장을 그대로 남겨두고 일층만을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23> 내향적인 例

V. 고령자 전용주택에 있어서 座의 형성

여기서는 고령자 전용주택 두곳(P주택, E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부터 사람들의 앉아 있는 자리 즉, 座에 주목하여 물적 환경에 의한 제한이 거주자의 생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한다.

1. 고령자 전용주택의 특징

동경都내의 2개소의 고령자 주택에 살고 있는 단신세대 22例를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히어링 조사 및 평면채집조사를 행하였으며, 이들 고령자 전용주택은 양자 모두 동경도의 실버피어 사업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65세 이상을 입거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택의 고령화 사양의 특징으로는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점이 시도되어져 있다.

LSA 상주/ 단차의 해소. 현관, 욕실, 변소의 손잡이 설치/
긴급 통보시스템/ 생활리듬 이상감지장치

분석대상 주택의 住戶플랜은 <표 7>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하는 이 분류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2. 住戶내의 座

1) TYPE별 座의 수

住戶내의 각각의 거주자가 취하고 있는 座(식사·TV·작업·접객 등)의 수를 플랜type별로 계산한 것이 <표 8>이다. type 1-3에서는 면적은 거의 동규모(30-32m²)이지만, 座의 수는 type1에 비해 type3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은 住戶플랜 등의 밀접환경이 거주자의 생활에 주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2) 규제된 공간에 있어서의 座

각 플랜에 있어서, 住戶의 벽체, 공간을 점하는 가수, 및 불박·이장·변소·욕실을 평면도상에서 칠해 버리는 것으로 住戶내부의 이동가능한 공간이 남게 된다. 이러한 남은 공간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座를 polt해가는 것에 의해 공간과의 대응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5>). 먼저 물건에 의해 점해지는 (검게 칠해진) 부분의 면적을 type별로 평균해서 비교한 것이 <표 7>이다. Type 1-3은 그 면적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座의 형성이 공간의 면적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대상주호플랜의 분류

	TYPE1	TYPE2	TYPE3	TYPE4
주택	P주택	E주택	E주택	E주택
plan	1K	1DK	1DK	1DK
면적(m ²)	30	32	32	36~47
戶數	11戶	6戶	3戶	2戶

<표 8> TYPE별 座의 수

	座의 수			계
	1	2	3	
TYPE1	9例	2例	-	11例
TYPE2	3例	3例	-	6例
TYPE3	-	-	3例	3例
TYPE4	-	1例	1例	2例

3) 공간과 座의 관계

① TYPE 1

행동가능한 공간단위로써 인식되는 것은 제일 안쪽 한군데 뿐으로, 현관에서 거기까지는 좁은 통로공간 형상으로 되어 있다. 座는 거의 안쪽 거실공간에서만 출현한다. 거주자의 생활에 대한 공간의 기준선이 그만큼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② TYPE 2

현관부분의 식사실과 안쪽의 거실의 2개소로 분리된 공간을, 좁은 통로가 이어주는 꼴이다. 안쪽의 거실 외에 현관 부분의 공간에도, 6例중 3例에서 (식사의) 座가 출현하고 있다. 이때의 현관측과 거실측의 座는 住戶의 양단에 분리되어 위치하는 결과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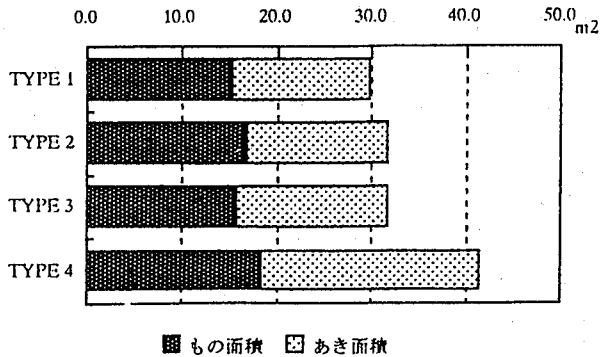
③ TYPE 3

住戶폭이 넓고, 부엌과 거실이 2공간이 통로를 끼지 않은 채 직접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을 지닌 공간으로 되어 있다. 3例에서 모두가 부엌에 식사의 座가 있고, 거실부분에는 별도로 복수의 座를 가진다. 거주자의 의식수준이 틀리는, 말하자면 부여하고 있는 의미가 틀리는 座들끼리가 서로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④ TYP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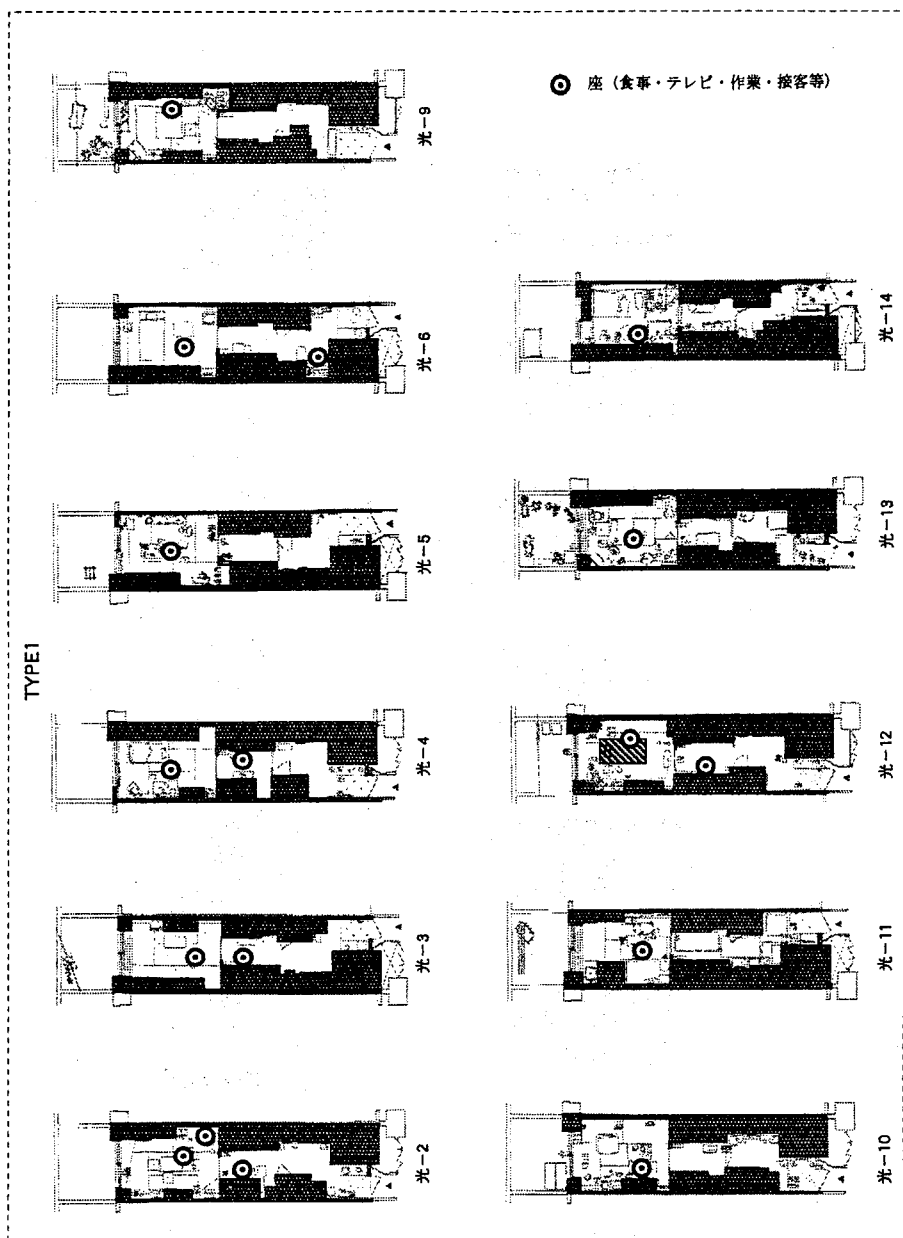
부정형의 원로플랜으로, 면적에서도 다른 3플랜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 4例수는 적다고는 하나, 住戶내부에 복수의 座가 출현하고 있다. 공간구성은 TYPE3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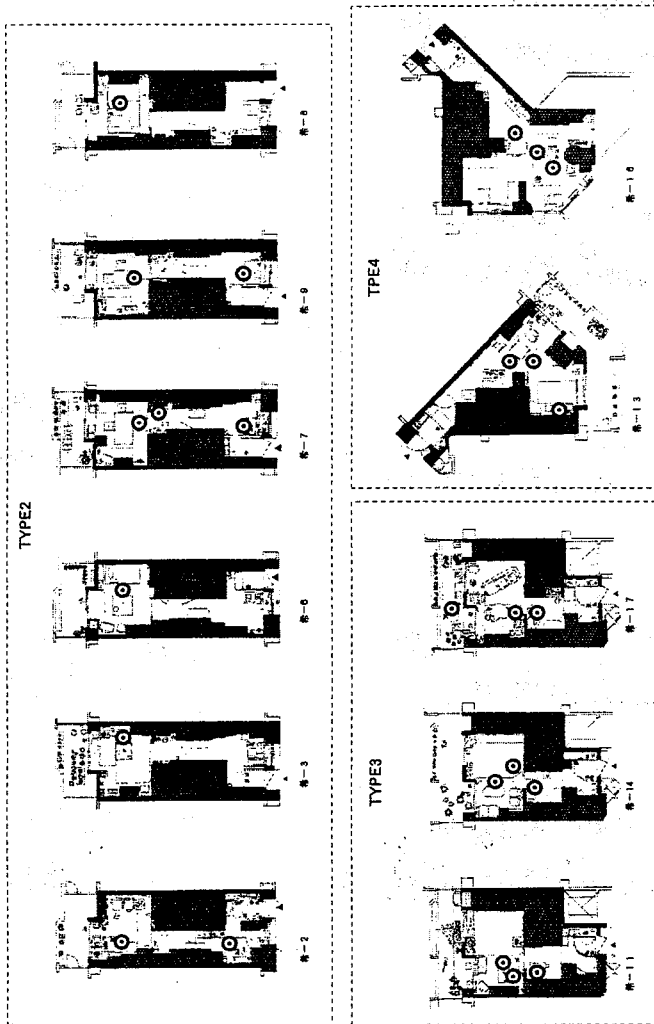
가구의 놓여지는 방식과 사람이 취하는 座의 위치는, 주어진 물적환경 속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거기에는 개개의 거주자가 자신의 생활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플랜에서는 복수의 座가 출현한다고 하는 것은 거주자가 그 공간에 대해 다양한 수준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는 같은 면적이라 할지라도 TYPE 1이나 TYPE 2에 비해 TYPE 3의 경우가 거주자 각각의 variation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24> 주호내 행동가능한 공간면적

고령자의 주거시설에 있어서 인간과 물적환경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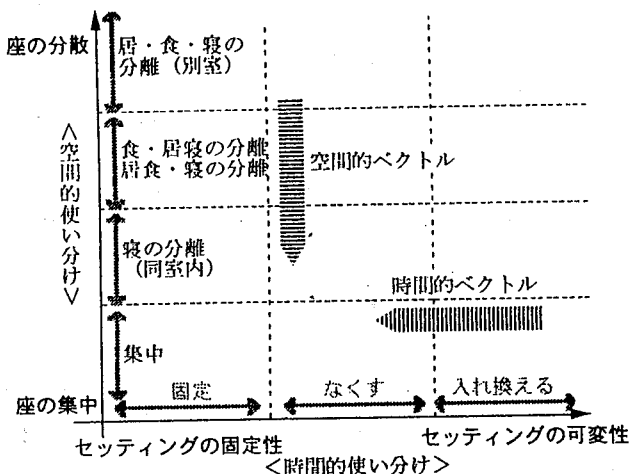
<그림 25> Type別 주호플랜과 座의 위치

VI. 고령자 전용주택에 있어서 座의 질 (「居」, 「食」, 「寢」)

여기서는 V장에 이어 고령자 전용주택을 대상으로, 住戸내부에서의 座에 주목하여 고령자의 거주환경에 대하여 고찰한다. 그때 대비시키는 의미에서 IV장에서 고찰한 바 있는 기성가지 · 집합주택단지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한다.

1. 「居」의 場

住戸내부에서, 종래로부터 「食」과 「寢」취급되어져 왔다. 하지만 住戸에 체제하는 시간이 길기 쉬운 고령자의 입장으로서, 잠을 잔다든가 쉬다든가하는 평소자주 머무르는 장소, 즉 「居」의 장소가 생활의 보다 중요한 거점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고령화에 수반하는 생활을 집약화라는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해 보면, 「居」와 「寢」과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6> 장소의 분리 · 집중의 시간 - 공간지표

<표 9> 「居」, 「寢」과 현관과의 관계

居寢		寝具	可動(布団)				固定(ベッド、万年床)			
居寢 一致	寝と居の場が 一致している		P	E	A	N		P	E	A
			P	E	A	N		P	E	A
居寢 同室内 分離	寝と居の場が 隣接している		P	E	A	N		P	E	A
	寝と居の場が 同室内にある		P	E	A	N		P	E	A
	寝の室と 居の室が 一体化 している			E	A	N				
	寝は居よりも 奥の別室にある			E	A	N				
居と寢が独立した 別室にある				E	A	N				

凡例) 固定寝具 P P住宅の事例
 可動寝具 E E住宅の事例
 普段居る場所 A A団地の事例
 玄関 N N地区の事例

2. 「居」와 「寢」의 공간적 위치관계

조사대상 사례에서 '居'와 '寢'의 장소의 관계를, 현관에서의 위치관계까지 포함시켜 유형화시킨 것이 <표 9>이다. 이때 '寢'의 셋팅의 성격에 따라 주간에는 없어지는 가동식과, 주간도 야간과 같은 상태로 있는 고정식으로 나누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설명될 수 있다.

1) P주택, E주택, A단지, N지구로 갈수록, 居와 寢의 장소의 분리도의 variation이 넓어진다. 여기에는 당연히 주택의 크기가 관계하고 있으나, 고령자주택에서는 (특히 P주택) '居'와 '寢'의 관계는 대단히 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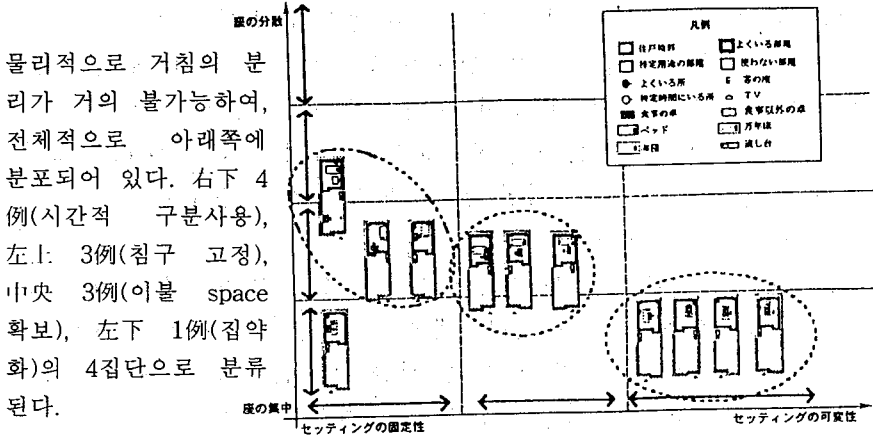
2) '寢'은 현관에서 볼 때, '居'보다 안쪽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많다. '寢'와 '居'의 장소가 일차·동실내·안쪽의 별실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寢'의 장소가 住戶의 안쪽에 위치하게끔 된다. 현관이, 외부공간과 직결되는 퍼블릭성이 강한 부분이라 한다면, '寢'의 장소는 무엇보다 프라이비트성이 요구되는 곳이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居의 장소가 사적인 면이 대단히 높은 장소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진다.

3) '居'와 '寢'의 장소가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생활의 집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주간에는 이불을 개켜, 그 장소를 居의 장소로 한다고 하는 시간적인 분리가 행하여지고 있다. 寢이 고정화되어 시간적인 분리가 행해지지 않게 되면 그 공간의 프라이비트성이 높아지게 된다. 생활의 場이 집약화하면, 그런 식으로 住戶내부의 영역적인 의식도 변화되어 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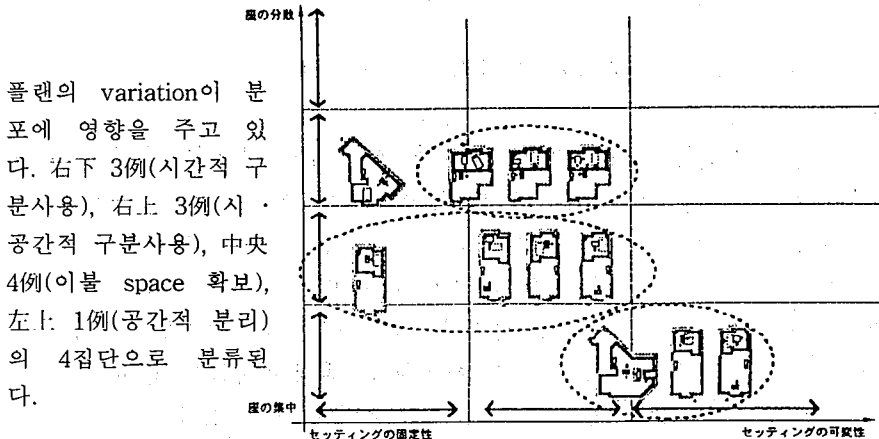
3. 場의 공간적 분리와 시간적인 구분사용

場의 공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관계를 동시에 보기 위해서, 종축에 공간적인 분리, 횡축에 시간적인 구분사용을 취한 단계좌표를 도인한다 (<그림 26>). 위로 갈수록 거식침의 場이 공간적으로 분산하고, 밑으로 갈수록 근접한다. 또한 우측일수록 셋팅의 가변성이 크고, 場이 시간에 따라 구분사용되지만, 좌측일수록 고정성이 강하게 된다. 이 좌표상에 대상사례들을 plot한 것이 <그림 27>~<그림 30>이다. N지구, A단지, E주택, P주택으로 갈수록 variation이 적어지게 된다. 생활의 집약화를 이 좌표상에서의 움직임으로 간주하면 위에서 밑으로의 공간적인 벡터(자신의

행동권을 축소시킴)와, 위에서 좌로의 시간적인 백터(셋팅을 고정화시킴)의 두종류의 움직임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자에게는 항상 이들 양자가 작용하여, 원점방향으로 향하는 시점에서 생활을 집약화로 이어지게 되리라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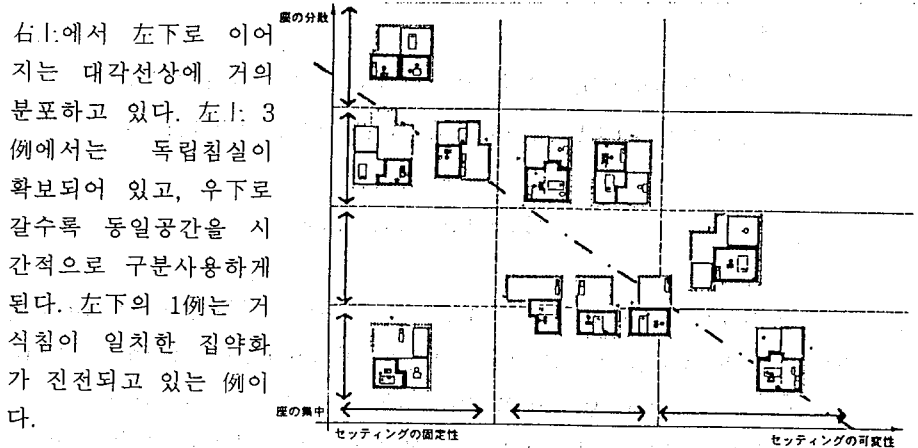


<그림 27> P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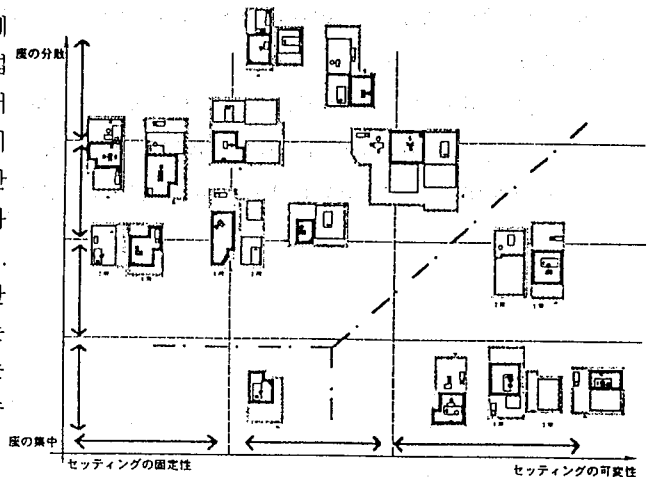
<그림 28> E주택

고령자의 주거시설에 있어서 인간과 물적환경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그림 29> A단지

住戶의 다양성 때문에 분포의 범위가 제일 넓으며, 左上의 9例에서는 전부 독립된 침실이 확보되어 있다. 하지만 반드시 셋팅이 고정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右下の 4例에서는 시간적으로 구분사용하는 예이며, 左下の 1例는 식의 장소가 없는 특수한 예이다.



<그림 30> N지구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Physical Environment in Dwellings for the Elderly

Kyeong Lark Lee

This paper concerns the issue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e focus is on the reciprocal changes in the elderly persons and their environment when they move from their accustomed homes to new surroundings. Then this paper focuses on following important points 1) The author sought to explain the features of social systems for dealing with the elderly, and the differences of restriction by residential environment for elderly. 2) Then this paper analyzes the various housing alternatives for the elderly in Japan and classifies them according to region. Through the above-mentioned analysis, author made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 graduated effects of material environments on the residents in hou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